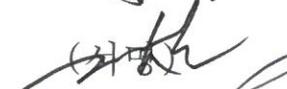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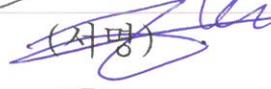


<2022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연극분야)> 선정단체 의결서

- 일 시 : 2022. 3. 28.(월) 13:00~
- 장 소 : 대한민국예술인센터 세미나실A (20층)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 심의단체 : 842개 단체
- 선정단체 : 269개 단체

<2022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연극분야)> 선정단체 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의결합니다.

2022. 3. 28.

심사위원장	김 영 배	(서명)	
위원	이 상 현	(서명)	
위원	조 민 권	(서명)	
위원	정 광 생	(서명)	
위원	이 현 기	(서명)	
위원	김 백 구	(서명)	
위원	장 재 환	(서명)	
위원	장 봉 태	(서명)	
위원	김 도 형	(서명)	
위원		(서명)	()

<2022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연극분야) 심의총평>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은 2020년 코로나19로 무너진 공연예술계에 종사하는 인력을 지원해주기 위한 사업으로, 문체부와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얻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계획한 사업입니다. 연극 분야에서는 2020년 3차 추경으로 700명의 연극인이 5개월 동안 수혜를 받고, 2021년 1,2차 추경예산 편성으로 각각 5개월 동안 800명, 3개월 동안 500명의 연극인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고용 불안과 생산적인 경제행위를 인정받지 못하던 연극예술인들이 4대 보험 가입자가 되어 일시적이거나 예술 창작활동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으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직접 고용 사업입니다.

반갑게도 2022년부터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어 문화예술분야 총 2,000명의 인력에 대한 6개월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연극 장르는 이 중 1/4 정도인 500명 인력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었습니다. 일단,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고, 사회적으로 항상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고용불안정과 저소득으로 생존권에 위협을 받던 연극예술인들을 사회의 구성원이자 기초예술의 창작권이 보장받는 일원으로 인정하기 시작한다는 것으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2022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연극분야)은 총 3205명의 인력 채용을 희망하는 843개의 단체가 지원하는 기업을 토했습니다. 수도권 66%, 이외 지역 34%의 접수 비율에 맞추어 장르 전문가 6명과 행정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은 해당 지역의 단체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도 깊은 심의를 위해 1차 서류 심사, 2차 대면 심사로 진행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이 사업이 단체의 예술성을 검증하는 사업이 아니고 연극계 발전과 공연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 계획의 명확성과 예술지향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장기간 정체 중인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단체의 상황과 다양한 공연활동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역량 있는 신진 단체들의 활동기회 부여도 고려했습니다. 또한 30%이상 서울/수도권 외 단체를 배정해야 한다는 상위기관 지침을 고려하였으며, 신청서류만으로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협회 사무국에서 면밀히 확인해주어 수차례 토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269단체를 선정하여 인력 배정을 완료했습니다.

심의를 진행하면서 다수의 심의 위원들은 사업 계획이 너무 광범위하게 기술되어 내용이 불분명한 계획안, 연극과는 전혀 무관하거나 지원사업을 통해 이어질 파급효과가 다소 미비한 계획안, 혹은 다른 사업의 일환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단체, 극단 전체의 단순 인건비 조달을 위한 경우나 단체의 순수성이 의심되는 경우, 사업의 취지와는 맞지 않은 단체 성향 및 계획안, 여러 단체를 공동 운영하여 여러 사업자등록으로 지원하는 경우, 사업계획과 동일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을 받는 단체 등은 재차 확인을 거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연극 창작과정의 다양한 가치와 가능성을 신중하게 살피면서 지원한 단체들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였습니다.

논의를 진행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지역을 나누어 신청 건수로 전체예산을 분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매우 합리적이고 당연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의 균형 발전이라는 큰 관점에서 볼 때 단순히 단체 수나 종사자의 수로만 판단되고 지원되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연극예술에 대한 지원예산의 많고 적음을 넘어, 이후에는 지역 연극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이루어져 정책이 실행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지원단체 대비 배정된 선정단체 수가 적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지역단체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이라는 원칙이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연극 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차치하고라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향후, 지역단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이 더욱 발전하여 정부가 기초예술 분야를 사회의 공공재로 확인하고, 예술가들의 생존권과 처우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지속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심의에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단체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2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 연극분야 심의위원 일동
(김영배, 김도형, 김혁수, 문창성, 이상현, 이현기, 장재환, 장봉태, 조민철, 조현주)